가면을 벗겨라!
승냥이는 양으로 변할 수　없다!!

3 - APR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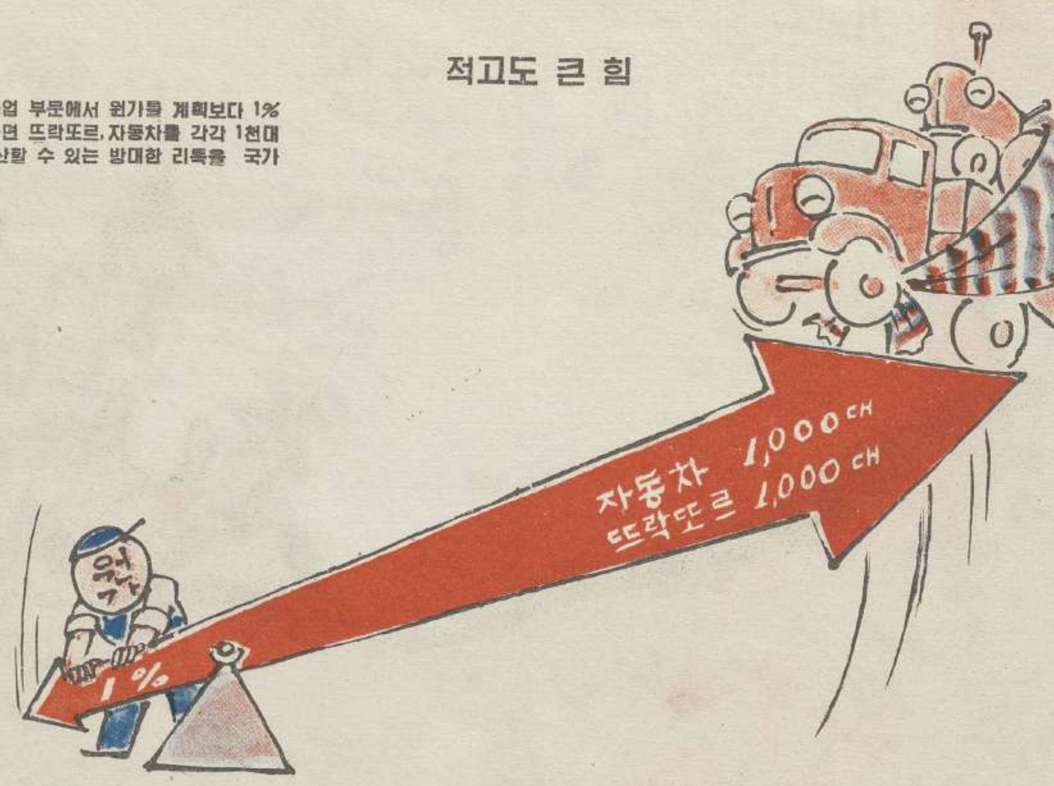
화살

1960년 6월 하반호 (128)

백 인균 그림

적고도 큰 힘

금년도에 공업 부문에서 원가를 계획보다 1%만 저하시킨다면 뜨락또르, 자동차를 각각 1천대씩이나 더 생산할 수 있는 방대한 리득을 국가에 주게 된다.



최 영근 그림

여럿이 참가한「나의 기대 운동」

최 영근 그림

꿈에서 실현된 《기계화》

사리원 식료 가공 공장에서는 작업을 기계화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할 데 대하여 무관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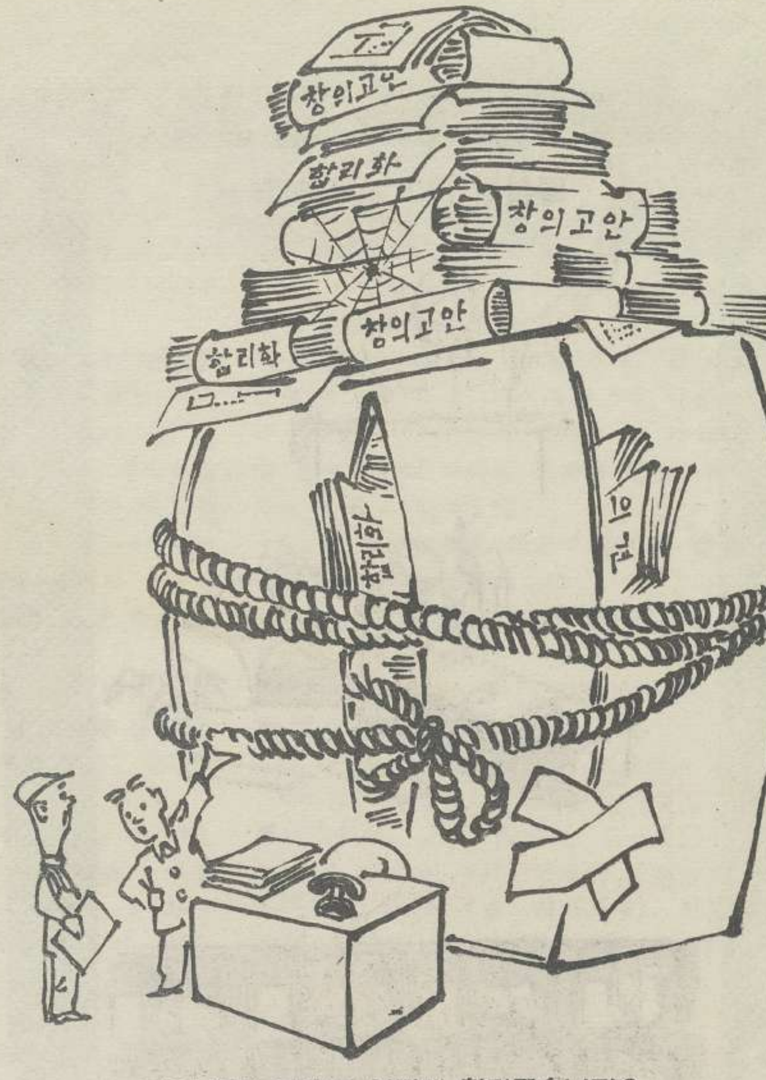
눈 감고 물 퍼 쓰기

서흥 광산에서는 기술자 양성 폰드를 부차적인 사업에 람용하였으며 기술자 양성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홍 종호 그림

심중한 처리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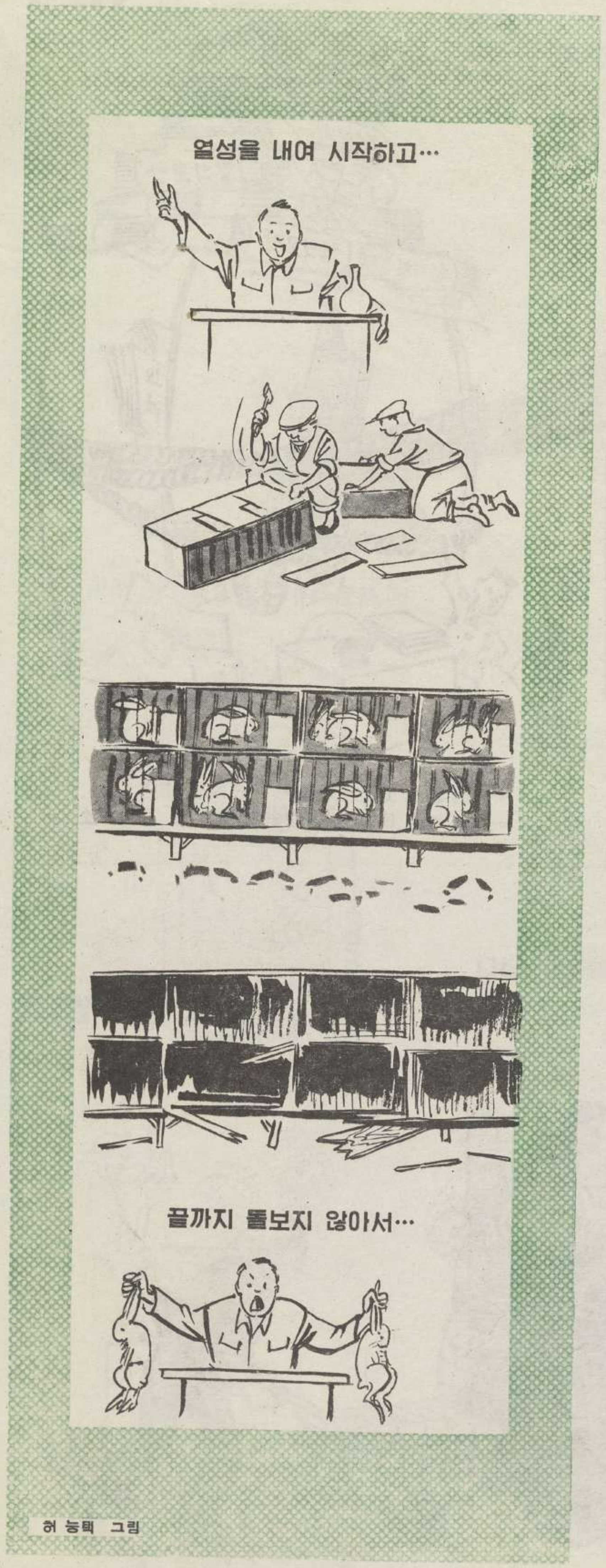


—저의 창의 고안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제일 높은 데와 제일 깊숙한 데에 잘 간수했소

어린이보다 배꼽이 크다

영제 요업 공장에서는 로력 관리에서의 불합리성과 무계획적인 작업 조직으로 인하여 막대한 로력을 랑비하였다.

안 창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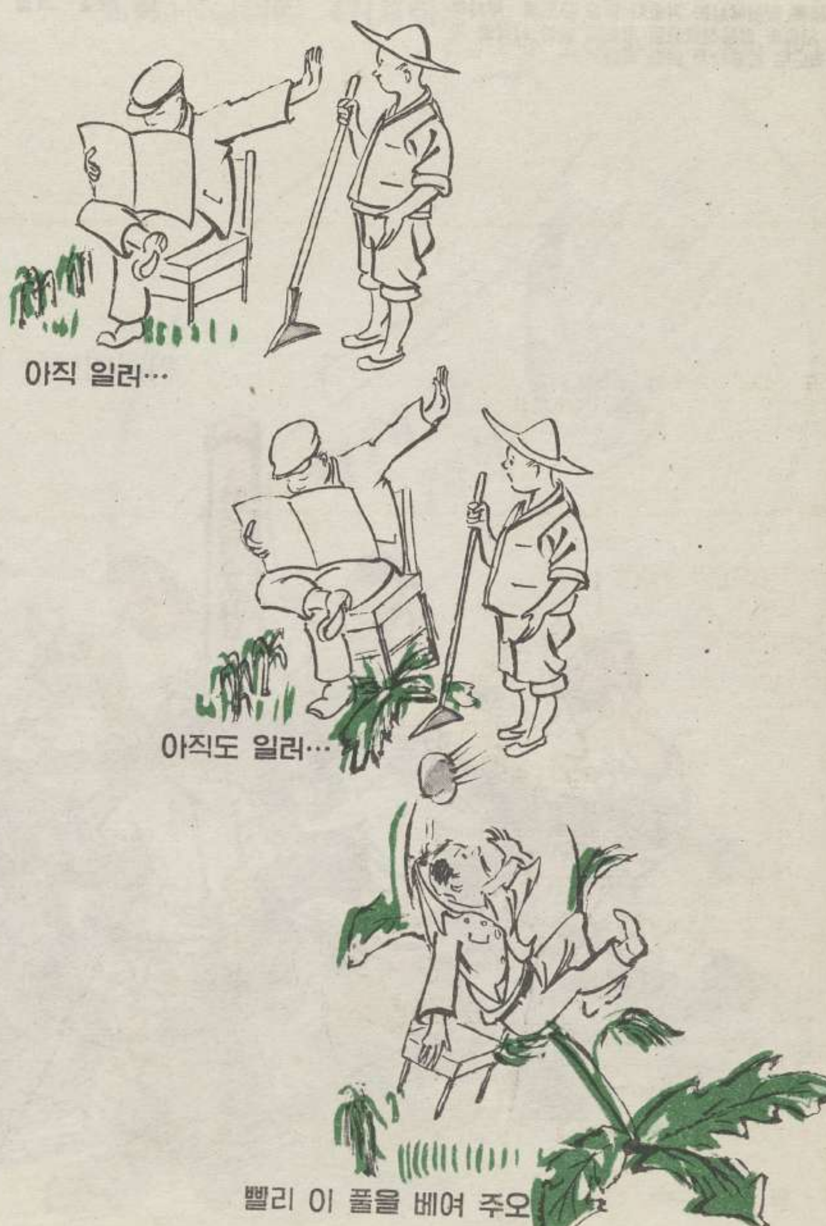
열성을 내여 시작하고…

끝까지 돌보지 않아서…

허 능택 그림

그는 《지시》 대로 하였다

함남도 단천군 직절리
심 상기 그림



아직 일러…

아직도 일러…

빨리 이 풀을 베여 주오

허 능택 그림

"강서군 약수리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토끼장의 설비 불철저로 인하여 너구리, 삵기, 족제비들에게 토끼를 매밤 1~2 마리씩 빼앗기는가 하면, 사양 관리를 잘못한 탓으로 금년에 들어 와서도 폐사률이 군내에선 최고 기록이다„

이 소문을 들은 군내 토끼들은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서기리 조합 토끼들은 원호단을 조직하여 약수리 토끼 마을로 보냈다.

원호단이 약수리 토끼 마을에 도착해 보니 토끼의 집집마다에서

《엄마! 배 고파 죽겠어!》

《아이구 더워라, 지린내는 왜 이렇게 나나? 골치가 다 아프네!》

이런 비명과 함께 어떤 토끼장에서는

《엄마! 너구리가 날 잡아 먹으려 왔소!》

하고 헛소리를 치는 토끼들도 있었다.

이런 비명에 토끼 원호단들은 가슴을 조이면서 우선 어미 토끼를 찾았다.

어미 토끼도 역시 앓고 있었는데 어찌나 여위였는지 그 꼴이 꿈에 보일가 겁이 났다.

《어디가 편찮으시우?》

《예, 걱정이 많다 보니…》

어미 토끼의 눈엔 이슬이 맺혔다.

《근데 왜 이렇게 누추하고 더운 집에서 사오?》

《사실은 이 토끼장이 좋다고 관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억지로 이리 이사시켰답니다. 먼저 살던 정림'골 토끼장은 어찌나 〈잘 지었는지〉 산짐승들이 매일밤 와서 우리들을 차반으로 잡아 갔고 방들은 〈너무나 깨끗해서〉 매일 같이 줄초상을 쳤쉬다.…보시다싶이 이 토끼장은 좁고 통풍 장치가 없어서 작년에도 이 토끼장에서 삼복 더위 때에 무리 주검을 당한 곳이 것만…》

《집들은 그렇다 치고, 왜 요즘 같이 산파들에 사료가 깔려 있는데 배 고프게 삽니까?》

《갇혀 있는 우리가 별 재간 있소? 뜯어다 주어야 먹잖겠소?》

어미 토끼는 한숨을 푹 쉬고 말을 잇는다.

《……그차에 설상 가상으로 약한 관리공을 배치해 주어서 제대로 사료도 못 뜯어오고 청소도 못합니다. 아마 내 병이 화'병인 것 같소!》

하고 어미 토끼는 끙끙 앓는다.

《사실 조합 관리 일'군들의 관심 여하에 많이 달려 있지요. 우리 조합 관리 일'군들은 우리들에게 우수한 관리공을 배치해 주었는데 그는 토끼장에서 같이 살다싶이 합니다. 우리들 방에 누기가 찬다고 발판을 깔고 그것을 사흘에 한번씩 끓는 물에 담가서 석회수로 소독한 후 해'별에 잘 말리여 깔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병„이란 말조차 모르지요! 지난 3~4월에 39 마리의 어미 토끼가 382 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100%로 자라고 있지요!》

《정말 당신네들은 축산에 관심이 많은 주인들을 만나서 행복하오!》

이 때에 약수리 관리 위원장이 불연듯 토끼장에 나타나더니

《원호단이 어디 있어, 앙? 이놈들이 누구를 망신시키자는 수작이냐, 앙?》

그는 눈을 부릅뜨고 채찍을 휘두르며 설친다.

《위원장 아저씨! 우린 이 자리에서 당장 떠나겠쉬다. 그리 노여워 마시오. 우리는 이 길로 군으로 가서 "약수리 토끼장은 한증하기에 알맞게 〈잘 지었으며〉, 아저씨는 토끼 사양에 〈공〉이 많으므로 〈훈장〉을 주도록 제기하겠수다.》

하고 토끼들은 달아난다.

《저, 저런 놈들이……저 요망한 토끼 놈들이 내 망신을……》

관리 위원장은 쥐었던 채찍을 떨어 뜨리며 멍하니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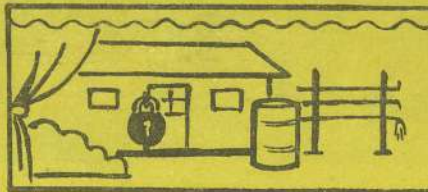
피 호주

평북도 구성군 인민 위원회에서는 현재 건재 상점에 체화되고 있는 농기계들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높은 리용률》

농기계는 리용되였다

허 능택 그림



《일이 안될라니까!》

김 오준

김 (무대로 뛰여 나오면서) 박 동무!
박 (맞은 편에서 나오면서) 왜 이러나?
김 여보게, 잠을쇠! (손을 내밀며)
박 잠을쇠라니?
김 이 사람아, 온단 말이야 와…
박 오다니? 삼청동 리몽룡이가 남원땅으로 내려오나, 아니면 강남 갔던 제비가 옛집으로 다시 오나?…
김 이 사람아, 속 편안한 소리 말라구… 위생 검열을 나온단 말이야
박 아니 오늘 위생 검열 날이게?
김 그러게 말이지… 위생 검열날두 아닌데 불의 검열을 나온다거든, 그러니 이젠 비상 수단으로 방에 큼직한 잠을쇠나 뎅그렁 잠궈 놓을 수 밖에…
박 헌데 여보게 난 잠을쇠를 안 가지구 있어
김 뭐? 아니 그럼 누가 가지고 있나?
박 수직실에 있겠지
김 오—라 수직실…(뛰여 나간다)
△ 잠간 동안 박은 바깥을 살펴 본다
김 (다시 뛰여 들어 오며) 없어 수직실에두 없던데…
박 그래? (잠간 생각)
오라 참, 부장 동무가 가지구 갔을 거야
김 뭐? 하필 또 오늘따라 잠을쇠를 넣구 갈건 뭔고— 허 참 일이 안될라니까
이거 큰 일 났구나… 어떠컨다?
박 좌우간 벼락 청소라도 허는 수 밖에…
김 됐네, 수가 있단 말이야, 내 쓱— 복도에 나가 살피구 있을테니까 자넨 그 로켓트식으루다 한번…(손 시늉을 한다)
박 그럼 단단히 보라구
△ 김은 바깥에 나가 살피고 박은 분주히 청소
김 여보게, 이젠 틀렸네 틀렸어! 벌써 이리로 오는데…
박 (비'자루를 든채)
어컨다?
김 글쎄 어컨다가?
(결연히) 허지만 여보게, 하늘이 무너져두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비상 대책을 짜내야 하네
박 그렇지 침착하세!
김 아하 그렇지, 고걸 생각 못했구나!
(밖으로 뛰여 나간다. 다시 뛰여 들어 와서)
아 어쩌면 요렇게 머리가 돌지 못했는지… 옆의 부서 쇠가 우리하구 똑 맞는걸 홀랑 잊어버렸구려…
(잠을쇠를 잠근다)
△ 이때 위생 검열원 등장
검열원 수고 하십니다.
김 어서 오십시요
△ 박 슬그머니 빠져 나간다.
검열원 이 기관은 위생 문화 사업에서도 모범입니다! 이렇게 불의에 나와 보았는데두
김 사실 자랑이 아니라 우린 〈위생 검열일〉이요, 〈대청소일〉이요 하는게 없습니다. 이를테면 위생 문화 사업이 아주 생활화 돼 있다 보니
검열원 퍽 좋은 현상입니다.
김 사실 말이지… 우리 방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루는 온통 비누로 닦구 책상 걸상은 하루 세 번 이상… 그리구 가장 특징적인 점은 눈에 안 띠우는 곳에 중점을 두면서 청소를 하는 그겁니다. 다른 데서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검열원 네, 그럼 한번 구경이나 좀…
김 그런데 유감스럽게두 오늘따라 글쎄 우리 부장 동무가 열쇠를 가지구 간걸 모르구 점심 시간에 그만 방을 잠궈 버려서…
검열원 그렇습니까?
김 사실 한번 유성 방송이나 신문에 소개할 필요도 있다고까지 별러 오던 차인데…
검열원 그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좀 늦더라두 기다렸다가 보구 가겠습니다.
김 아…아—닙니다. 그저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이지… 사실 까놓구 말해서 우리가 뭐 남들한테 칭찬이나 받자구 위생 문화 사업을 합니까 뭐?
검열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게 아니지요.
김 아닙니다. 검열원 동지야 바쁘실텐데…
△ 이때 부장 등장
부장 아, 시에서 나오셨습니까?
검열원 네, 부장 동지십니까? 마침 방구경을 좀 하려던 참에…
부장 네 그럼 자, 들어 갑시다.
△ 잠을쇠가 잠겨 있는 걸 보고
부장 아—니 어떻게 쇠가 잠겼소?
김 네 그저…
△ 부장과 검열원이 방으로 들어 간다.
김 (독백)
아, 참! 하필 요런 때 돌아 올건 뭔고… 허 참! 일이 안될라니까……(막)

파리들의 활무대

함남 유정 상점 일'군들은 상품을 위생 문화적으로 보관 관리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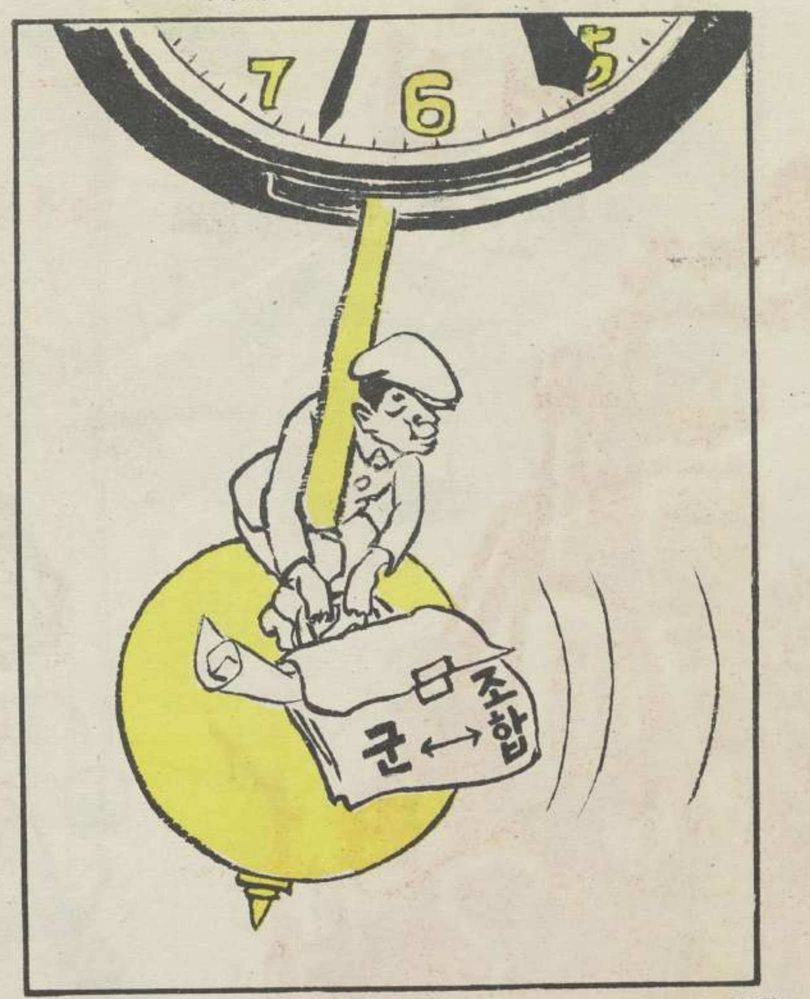
원 광수 그림

정량대로 실지 않았는데?!

운반공—보나 마나지요
통계원—정량 300키로그람라…

국영 청단 농장 리 필윤 그림

시계추 같은 지도 일'군



송 용남 그림

일부 군 일'군들은 농업 협동 조합의 생산과 관리 조직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집행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형식적으로 군과 조합을 오르 내리는 현상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건설 관리국에서는 설계를 시공에 선행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수 차례에 걸쳐 시공 계획을 변동시키므로서 원산 건설 트레스트로 하여금 막대한 로력과 자재 랑비를 초래케 하고 있다.

송 시엽 그림

—설계가 늦긴 했지만 이렇게야 틀릴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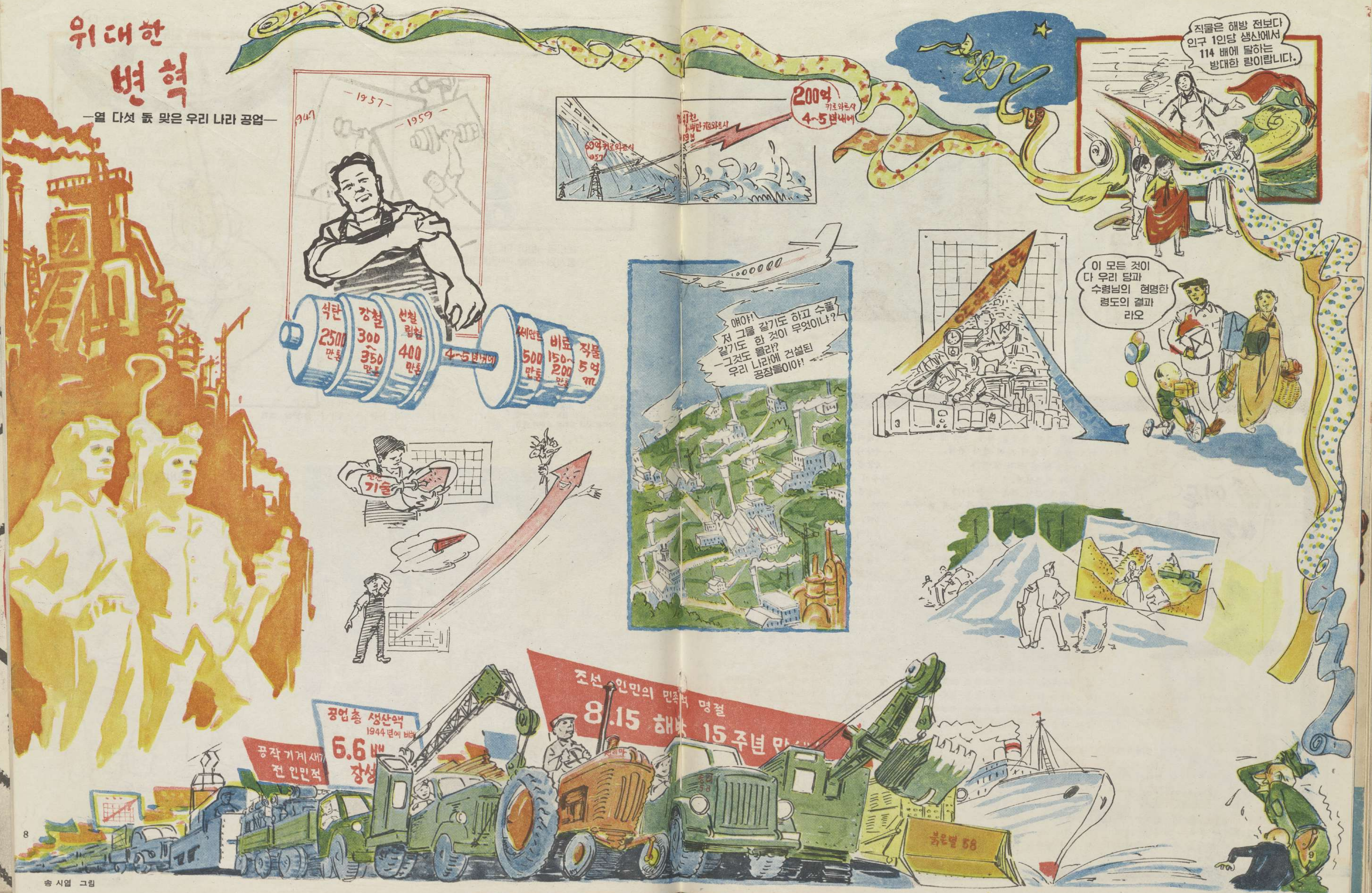
준비된 흡연가

—동무, '담배는 정한 장소에서…
—나야 언제나 준비돼 있으니깐…

평양시 외성 구역 동흥동
윤 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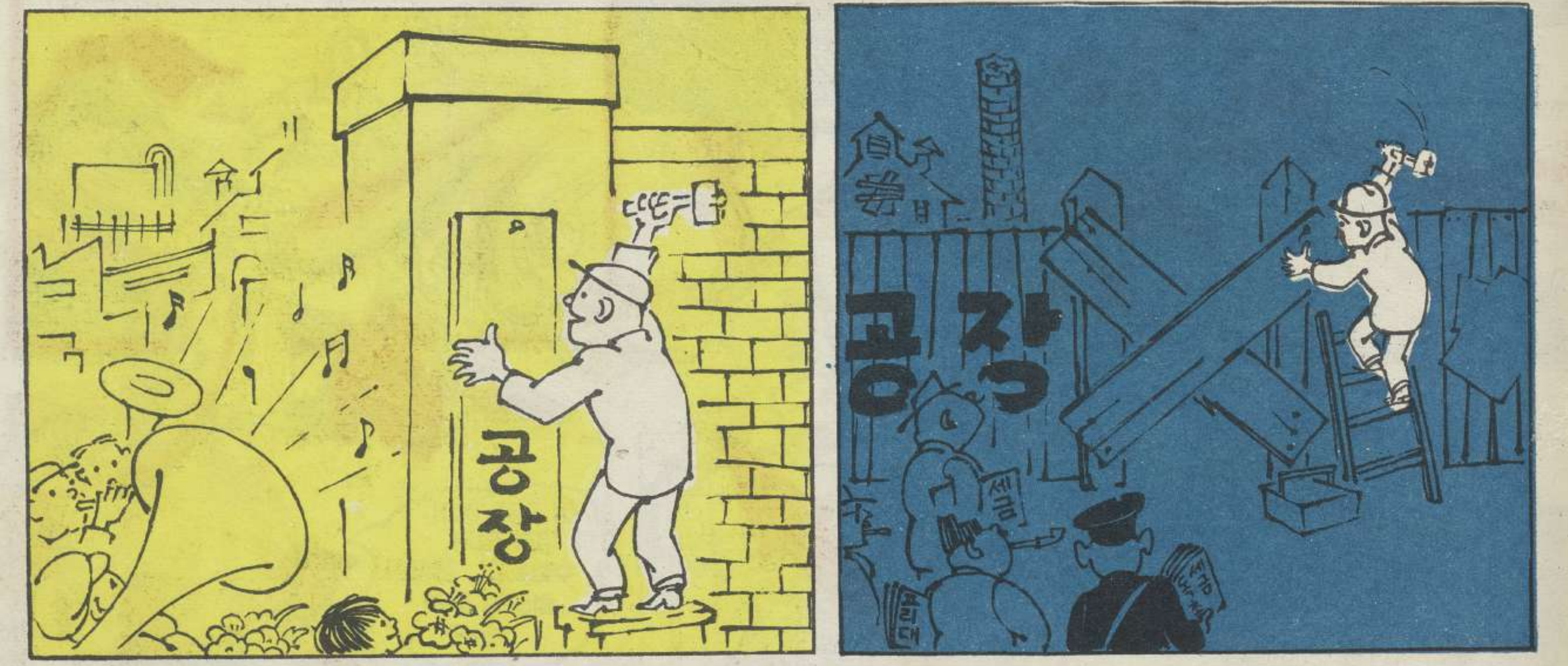
위대한 변혁

—열 다섯 돐 맞은 우리 나라 공업—



송 시엽 그림

망치 소리는 같건만



최 영근 그림

북조선 남조선

신 홍순

《인간 백정놈을 잡아 내라!》

갑자기 군중들이 와— 밀려 오자 경찰 국장 놈은 뒤'문으로 빠져 자기 조카의 집으로 도망을 쳤다.

거창 대 학살 사건 당시 악질 경관이였던 그는 이번 《과도 내각》이 들어 앉으면서 일약 경찰 국장으로 등용되였던 것이다.

《애야 나를 좀 구해다오, 저 미군 부대까지만 가면 돼》

간신이 살아 나온 경찰 국장은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조카를 붓들고 애걸 한다.

《그러니 어떻게 거리를 빠져 나갑니까?》

그들은 이리궁리 저리궁리 하던 끝에 한가지 묘안을 생각해 냈다.

조카는 경찰 국장을 자루 속에 넣어 걸머지고 땀을 흘리며 바삐 걸어 간다.

《사람들은 안 따라 오지?》

자루가 지껄인다.

《네 감쪽 같이 빠져 나옵니다》

《나를 브라운 대좌한테까지 안내 해 주고 너는 당장 서울로 올라 가거라!》

《서울로요?》

《그래 내무부 장관한테 가서 이 사연을 얘기하고 나를 중앙으로 끌어 달랜다고 해라. 한 고향 친구니까 내 청을 들어 줄게다. 그 땐 너도 데리고 가마》

《사람들이 또 서울까지 찾아 오면 어떡해요?》

《그 땐 또 딴 대책을 취하지, 얘 이거 갑갑해서 어디 견디겠니?》

《쉿! 사람이 옵니다》

미군 부대로 가려면 큰 강을 건너야 되고 그 나루터를 가자면 자그마한 고개로 질러 가는 데가 있다. 조카는 목을 길게 빼고 헐떡거리며 고개턱에 올라서자 지게를 내려 놓고 땀을 씻는다. 자루 아가리를 풀자 대머리가 불쑥 나온다.

《후! 인젠 살았구나!》

《안됐습니다. 아저씨 승용차만 타고 다니시던 분이》

《이런 땐 자루가 승용차보다 낫다. 그놈들이 인젠 걸핏하면 시위 폭행이란 말야!》

《쉿!》 사람이 오자 자루를 다시 졸라 맨다. 지나가던 로인이 숨이 찬듯 바위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워 물며 자루를 유심히 본다.

《그 자루에 건 뭐요? 돼지 새끼요?》

《돼지 새끼라니요? 원 참!》

《아니 뭔가 꿈틀대는 것 같은데…》

《꿈틀대긴 뭐가 꿈틀대요? 로인네가 눈이 어두어 그렇지 이건 감잡니다. 감자》

《요즘 감자를 용케 샀구려? 장에 나면 가?》

《예, 얼른 가 보시우. 다 팔리기 전에》

《어디 구경 좀 해 보자. 감자 알이 굵은지?》

《보나마나 해요. 먹음직 해요》

《어디 좀 봐!…》 로인은 굳이 지게 옆으로 다가 온다.

《글쎄 보나마나 허다니까요. 난 바빠서 가야겠수다》

로인은 속으로 (옳지 틀림 없구나! 분명 사람의 대가리 같은 걸 봤는데)하며 시내 쪽으로 내려 간다.

《아저씨 아무래도 저 령감이 눈칠 챈 모양 같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사람도 적고 또 사복을 하셨으니까 그냥 걸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찰 국장은 자루에서 나와 휭하니 걸어 갔다. 나루터에 다다르니 마침 사공이 없다. 잠깐 앉아 기다리노라니 그 집 할머니가 나온다.

《사공 령감은 곧 오시겠죠?》 경찰 국장 조급한 듯이 묻는다.

《예. 어디로 가시는데요?》

《강 건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시위엔 안 나가구 오시우?》

《시위요? 나가 봤댔자 무슨 신통헌게 있나요?》

《신통헌게 없다니? 오늘은 경찰 국장놈의 모가질 비틀어 놓겠다구들 나갔는데》

《아니 경찰 국장이 무슨 죄가 있다나요?》

《여태 모르시우? 그 녀석이 이곳 사람들을 얼마나 학살 했다구요? 늙으니,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죄 없는 사람들을 단꺼번에 수 백 명이나 죽인 살인 강도 놈인데…그런 녀석을 한 등 더 올려서 뭐 국장이라나? 개 같은 녀석들!》

《그 사람이야 상부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했겠지오, 뭐》

《아니 당신은 그 녀석허구 무슨 헌겁붙이나 되우? 왜 자꾸 두던해 나서우?》 마깝지 않다는 듯이 쏘아 본다.

이 때다. 군중들이 와— 몰려 온다.

《아이 저놈들이 예까지 쫓아 오는구나!》 당황한 끝에 다시 자루 속으로 들어 간다. 조카는 자루를 둘러 메고 도망을 친다. 그러나 갈 곳은 없다. 숨을 곳도 없다.

《이놈 네가 가긴 어딜 가니?》

할머니가 자루를 잡아 채는 바람에 조카는 자루와 함께 도랑창에 쓸어 졌다. 군중들이 몰려 왔다.

《어디 어떤 놈인가 보자!》

자루를 끄르니 대머리가 나온다.

《옳지 그 놈이로구나! 이 인간 백정 경찰 국장!》

격분에 찬 인민들이 달려 든다.

얼마 후에 군중들은 반 죽음이 된 경찰 국장 놈을 도루 자루 속에 집어 넣은 다음 조카놈에게 지워 가지고 자기 부락으로 가면서 이렇게 웨쳤다.

《이놈을 불에 태워 죽입시다!》

질식 됐다

박 승히 그림

미제의 가혹한 식민지 략탈 정책과 군사 기지화 정책으로 인하여 남조선 산업은 계속 파탄되고 있는바 1958년 11월 현재 휴업 및 운휴 상태의 기업체는 전체 기업체의 75%에 달하고 있다.

리 승만파 꼭같은 미제의 괴뢰인 허 정 일당은 각 시, 도 《경찰국》 마다에 《경찰 기동대》를 편성하고 인민 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폭압에 날뛰는 허 정

안 창수 그림

15년간을 두고 미국 상전의 땅크와 총검의 비호하에 파쑈 매국 통치의 지반을 닦았으나 결국 이 강토에 발을 붙이고 몸 둘 곳이 없게된 이 늙은 매국노는 력사상 가장 더러운 이름을 남기고 자기의 본래 소굴로 도망쳐 갔다.

주인집 마루 밑으로

박 승히 그림

1960년 6월 상반호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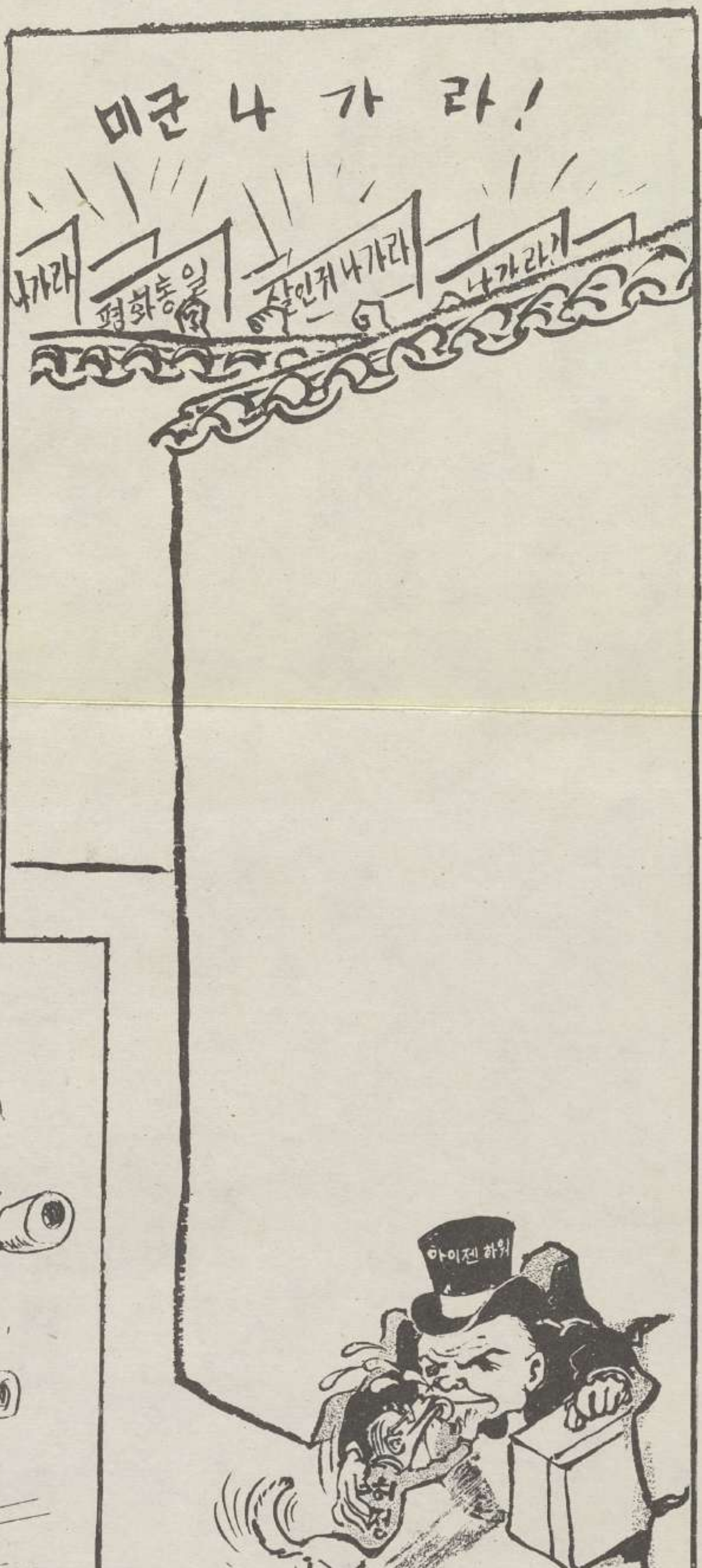
《포옹》했다

열렬한 포옹을 생각했고

격렬한 포옹을 했다　　최 영근 그림

급했다!

백 인균 그림



환영! 열렬한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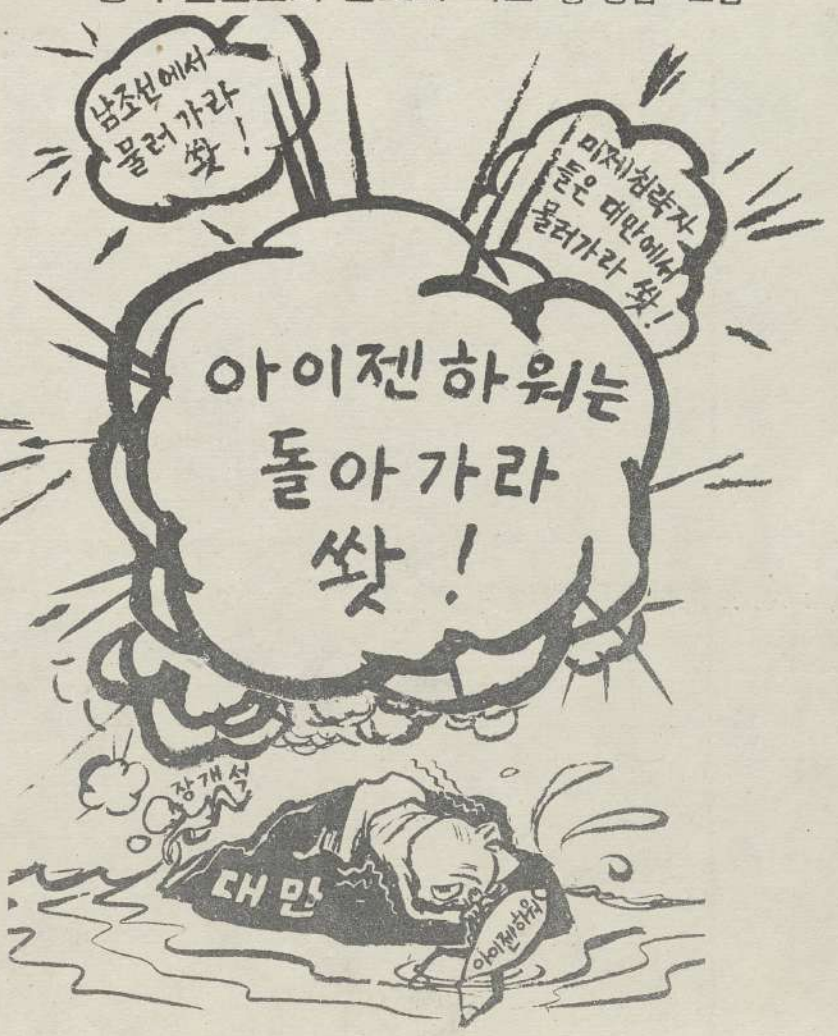
박 승희 그림

들어 올 수 없다

송 시영 그림

중국 인민들의 분노의 폭발

송 용남 그림



아이젠하워가 대만과 극동 지역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을 반대하여 복건 전선의 중국 인민 해방군 포부대들은 6월 17일과 6월 19일에 수천문의 포로써 장 개석군 강점하의 금문도와 그 주변 섬들에 대하여 맹렬한 포사격을 진행하였다

두발 걸음으로 갔다가

송 용남 그림 네발 걸음으로 돌아 온다

극동에서의 아이젠하워 초상

아이젠하워—나를 환영하는 대렬이겠지 ?

아이젠하워—에크! 반대시위로구나…

아이젠하워—아이쿠 !!!

로 철 그림

허 정의 《소리》

조 명식 그림

엉크러진 발판

남조선 강점 미군 사령관 매그루더는 《특히 고급 장관들은 어떤 죄행을 하였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여서는 안 된다》고 공공연히 떠벌렸으며 《지금은 하급 장교들이 고급 장교에 대해 분풀이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위협하였다.

박 승히 그림 미제 —한놈이라도 빠지면 안된다

귀여운 자식 더 생각한다

허 정 일당은 인민들에게 세금 략탈을 일층 강화하여 괴뢰 경찰과 괴뢰군 증강에 광분하고 있다.

—저 사람 깔아 주게 그 거적대기 내 놔라!

박 승히 그림

진짜 《수석》은 누구이냐?

라 일봉

지난 5월 어느 날이였다. 주한 미국 대사 맥코노이는 소위 《과도 정부》가 도사리고 있는 《중앙청》을 찾아 갔다.

이날 《중앙청》에서는 《관영 료금 인상안》 문제를 토의하게 되였는데 맥코노이는 바로 이것을 비준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각하! 우리 과도 정부의 재정은 밑창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철도 운임, 전기 료금, 리발료, 극장 입장료를 배폭 올릴려고 하는데…》

《좋습네다. 매우 좋은 안입네다》

《각하! 그런데 종래 법령에는 관영 료금을 올리려면 국회의 통과가 있어야 하옵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재정법을 일부 고쳐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복잡할 때에 일일이 국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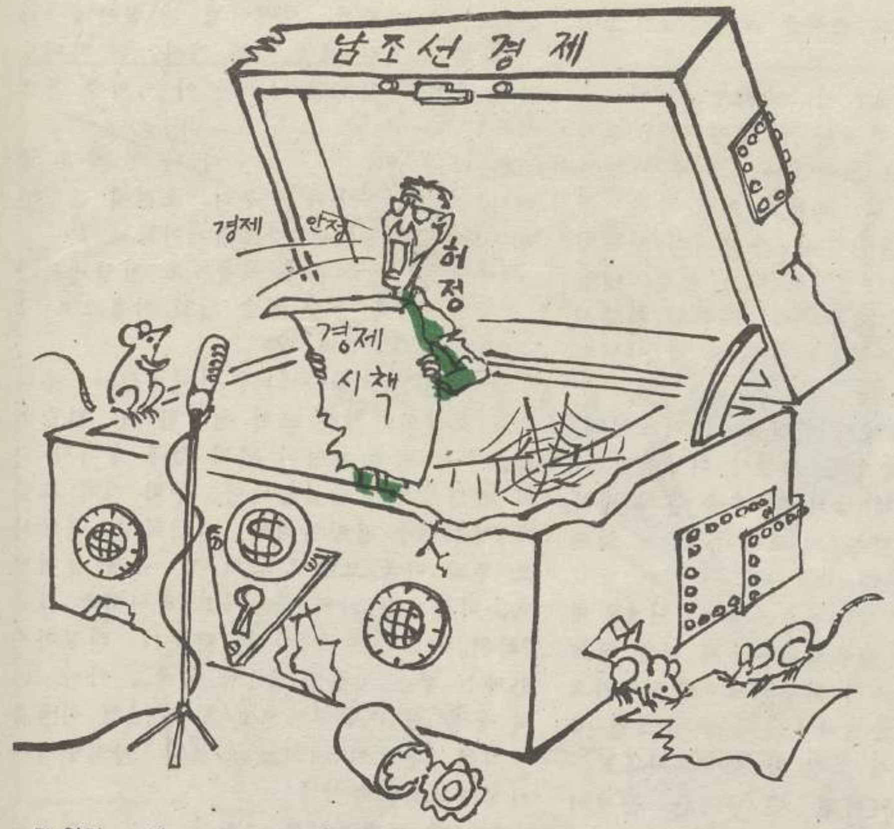
이리하여 맥코노이의 승인하에 《과도 정부》는 《관영 료금 인상안》을 공포하였다.

괴뢰군, 《경찰》관의 인사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철도 운임, 전기 료금 등을 올리는 것 조차 미국 대사의 비준을 받아야 하니 과연 《과도 정부》의 《수석》이 누구란 말인가?

사실은 명백하다. 《과도 정부》의 《수석》은 허 정인 것이 아니라 맥코노이라는 것을!

이날 《중앙청》에서 회의가 끝난후 한 괴뢰 《장관》은 허 정이더러 《각하! 맥코노이를 일일이 불러 올 게 아니라 중앙청에 그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괴뢰 《장관》이 《그럴 것이 아니라 과도 정부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사무를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빈 소리



최 영근 그림

더욱 억센 힘

남조선 로동자들은 혹심한 무권리와 확대의 암운을 박차고 더욱 강력한 기세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조 명식 그림

뻐스 이야기

리 판보

5월 28일 저녁. 사장은 파업한 운전수들에게 붙잡힐가봐 겁에 질려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 숨어 화'김에 술만 마신다.

《망할놈의 세상. 이래서야 어디 돈벌이를 해먹겠다구,차가 굴러 가야 돈이 굴러 들어오지. 운전수 녀석들이 뻐스를 자기 것 처럼 독점하구 시위까지 하는 판이니…》

그는 운전수들을 어떻게 하면 속여서 다시 취업케할 것인가고 연구해 봤으나 뾰죽한 수가 나지 않았다.

맥이 풀린 그는 그만 술잔을 들고

《사께와 나미다까 다메이끼까…》라고 일본식 수심가까지 웅얼대면서 탄식한다.

이때 국민 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 옥순이가 인사도 없이 방안에 뛰여 들며 〈기쁜 소식〉을 전한다.

《아버지 우리 회사의 뻐스가 다녀요. 손님들도 그전보다 많구요》

《무엇이, 뻐스가 다닌다구, 응. 정말이냐 정말이지…?》

그는 벌떡 일어섰다. 이 소식은 그에게 있어 빈사의 환자에게 주는 캄풀 주사이며 구명수가 아닐 수 없다.

《응. 그러면 그렇겠지. 운전수 녀석들이 항복하구야 말았구나. 제놈들이 암만 그래야 별 수 있을라구 흐흐…》

사장은 승리자로서의 쾌감으로 흥분되여 다시 축배를 높이 든다.

《오오. 나의 뻐스요. 차칸마다 가득 가득 딸라를 싣고 오너라》

이때 딸애가 계속 종알댄다.

《우리반 아이들이 아버지를 칭찬해요》

《암, 그렇겠지. 뻐스가 안다니면 불편하거든…》

《아니예요. 뻐스 값을 안 받는다고요. 그저 타고 그저 내려요》

이 말에 높이 들었든 축배잔이 방바닥에 떨어져 산산히 부서진다.

이날 서울시내 자동차 운전수들은 8시간 로동제와 대우 개선의 요구 조건에 불응하는 회사와 《차주 협회》를 반대하여 일부 구간의 뻐스를 운행하되 손님들에게서 뻐스 값을 받지 않고 무료 승차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태업을 시작한 것이다.

딸애는 그냥 종알댄다.

《돈 없이 걸어 다니든 금순이랑, 영란이랑도 돈 안내고 뻐스 타니까 기뻐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라고 칭찬해요》

그만 부아가 동한 사장의 번대 머리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오른다.

그는 미친듯 고함을 지른다.

《듣기 싫다. 아이구 이놈들이 종내 나를 파산시키는구나, 아이구 머리야… 골치야…》

사장은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재생》

김 동철 그림

벌거 벗은 도적괴

로 철

오뉴월 감기는 개도 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미국 유피아이 통신에 의하면 유독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만은 이 더운 날에 감기도 감기, 아주 심한 독감기에 걸려서 때로는 헛소리까지 치는 지경으로 열에 들떠 있다고 하였다. 그까짓 개보다 못한 녀석, 감기에 걸리겠으면 걸리고 지랄염병으로 뒈지겠으면 뒈지고 우리들에게는 하등 관여할바 못되는 일이나, 다만 흥미를 끄는 것은 이 월가의 나발통이 《대통령의 금번 병환은 파리 정부 수뇌자 회의의 파탄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는 것으로 소식통은 보고 있다》고 매우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하고 있는 사실이다. 기실 여기에는 그럴만한 곡절이 있는 것이다.

× × ×

때는 지난 5월 20일, 미제의 두목 아이젠하워가 미리 백악관과 펜타곤에서 짜 놓았던 계획에 따라 정부 수뇌자 회의를 파괴시켜 놓고 파리를 떠나 리스본을 걸쳐서 워싱톤으로 돌아 오던 바로 그날 아침에 있은 일이였다. 찌르렁하고 미국 중앙 정보 국장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할로! 미스터 알렌.덜레스 있습네까?》

《예,아,이거 대통령 부인께서 이른 새벽 무슨 급하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오,미스터 알렌,나,나 아주 아주 분해 죽겠습네다! 당신 그 놀라운 소식 들었습네까?》

《놀라운 소식이요? 아,그 비누 회사, 우유 회사 주권 값 폭락한 일 말입네까? 그거 놀래실 것 하나도 없습네다. 그 대신 로케트, 핵무기, 정탐용 비행기 회사 주권 값 많이 많이 올라 갔습네다. 우리끼리 말씀입네다만 대통령 각하께서도 바로 이걸 예견하옵시고 그 동안 정부 수뇌자 회의 파탄시키기 위해 무척무척 애써 오신 것 아닙네까?》

《오, 그따위 이야기 아닙네다. 미스터 알렌! 우리 아이크 언제 고양이 되였습네까? 우리 아이크, 언제 남의 집 우유 훔쳐 먹다가 태질 당하군 하는 그 도적괴 된 일 있습네까? 아이고, 분해…》

《아니, 대통령 각하가 도적괴라니요? 대체 누가 그런 말 했습네까? 우리 당장 체포해서 반미 활동 조사 위원회에 출도시키고 단단히 문초하겠습네다! 대체 누가 그런…》

《쏘련 내각 수상 그런 말 했습네다!》

《옛!? 흐—ㅁ…(이건 좀 난처한 문제이군…)》

《쏘련 내각 수상, 어제 파리 기자 회관에서 비둘기장 기여 들다가 태질 당한 고양이 이야기까지 하면서 미국 정탐 비행기 쏘련 침범한 사건과 정부 수뇌자 회의 파괴한 우리 음모 날날이 폭로했다고 방금 공보 비서 해거디가 전화해 왔습네다. 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네까?》

《흐—ㅁ…(이건 사실이긴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 미국 선전 기관, 한 마디도 반박 못하고 있으니 나, 나 아주,아주 분해서…》

《반박!? 네…. 아,나 참 좋은 궁리하나 생겼습네다! 우리, 쏘련에 강경한 항의문 써서 세상에 발표합세다》

《항의문? 미국 정부 이름으로 말입네까?》

《아니, 미국 동물 애호 협회 이름으로…》

《동물 애호 협회…?》

《네, 그렇지 않습네까? 아시다싶이 우리 미국 고양이, 아직 쏘련 침범한 일 없습네다. 우리 미국 고양이 파리 정부 수뇌자 회의 파괴시키지 않았습네다. 우리 미국 고양이 아주아주 선량합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 고양이 남의 집 우유 훔쳤다고, 비둘기집 기여 들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허위"이고 "모욕"이며 더우기 태질까지 한다는 것은 엄중한 "인권 침해", 아니 그, 저 동물 권리 침해임으로 이에 전체 식육류 묘과족 동물의 명의로 강경히 항의한다… 어떻습네까? 부인!》

《그 참 그럴듯한데 그러나 우리 아이크의 명예를 옹호하기 위해 동물 애호 협회의 이름으로 항의한다는 것은 어쩐지 좀 어색하지 않습네까?》

《그건 괜찮을 줄 아뢰니다. 지난번 쏘련이 제2 인공 위성을 띄워서 우리 미국 위신 떨어 뜨렸을 때도 거기에 개를 실었다고 트집 잡아서 동물 애호 협회 이름으로 항의 제출한 전례도 있으니까요,네》

《그럼 좋습네다. 어서 서두르시오!》

《네, 그러면 부인, 이젠 대통령 각하 도착할 시간도 다 됐는데 비행장 나가 보시지요, 네》

× × ×

여기는 워싱톤 비행장인데—.

《아니 미스터 알렌! 비행기는 벌써 전에 도착했는데 우리 아이크 왜 아직 보이지 않습네까?》

《네!? 네… 저,저—게 비행장 환영대 우에 벌거 벗고 올라 서서 계신분이 바로 우리 대통령 각하…》

《뭐요? 아니 저 물벼락 맞은 도적괴처럼 늘큰해서 맨 샤쯔 바람으로 서 있는게 저 바로 우리 아이크란 말요?》

《네, 지금 한참 연설하고 계신데 결국 그 뜻은 그 동안 입고 다니던 "평화"의 가짜 옷은 쏘련 내각 수상에 의하여 파리에서 몽땅 벗기우고 리스본에서는 분노한 인민들이 "이놈의 도적괴 잡아라!" 하고 물벼락까지 들씌워서…》

《오—! 그러니 우리 아이크 결국 도적괴 옳단 말입네까? 오—! 파리에서 워싱톤까지 맨 샤쯔 바람으로…오—으흐흐…》

이렇게 되여 이 더운 오뉴월에 감기도 감기, 개도 들지 않는 아주 심한 독감기에 걸려든게 분명하니, 아이젠하워여! 미 제국주의자들이여! 녀희들 모두 죽어 없어질 날 그리 멀지는 않았도다.

세계의 항구한 평화를 위하여!

홍 종호 그림

6월 2일 쏘련 정부는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철폐에 관한 새 제안을 각국 정부들에 보냈다.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서부 렬강이 쏘련의 금번 제안을 접수하려 하지 않고 인민들이 념원하는 공고한 평화에로의 길을 가로 막으려는 무분별한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은 자신의 파멸에 박차를 가하는 길밖에 가져 오지 않을 것이다.

련속 타격

최 영근 그림

—아이크!

지지 받는 아이크의 《론리》

최 영근 그림

깽1—아이크는 우리의 두목감이야…

깽2—국세금 깽인 그를 위해서 한잔 드세…

미제는 최근에 쏘련 령공에 대한 강도적 침략 행동을 감행함으로써 세계 인민들의 규탄을 받았다.

세상이 달라졌다

옛날엔 떨어졌는데

송 용남 그림

지금은 날아 온다

지울 수 없는 락인

홍 종호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5607

발 행 1960. 6. 20

(값 40전)

략탈자의 떼'목은 산산히 부셔진다

8034
Хвальсаль

ПЭ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д.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до 1-12 №8034